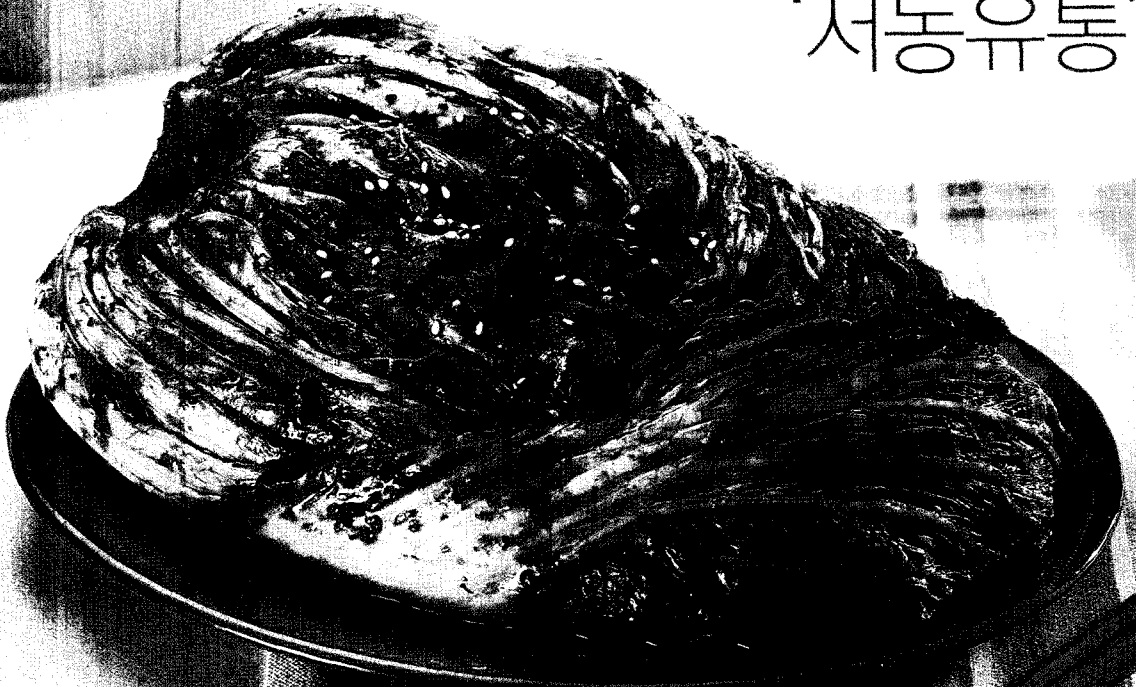


## 도농교류-농업소득 연계시리즈 박진천 사업관리실 과장

한농연은 전국각지의 사업우수사례를 모아 취재하고 소개하여 모든 한농연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농연을 만들어나가는 취지로 이번 연재를 기획했다. 이번 연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우수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잘된점은 칭찬하고 잘 안되는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농업계에서 으뜸서는 한농연의 모기를 바란다. 우수사업사례 첫 번째 사례로 충남서산시연합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농연 우수사업사례 전파 한농연서산시연합회 부설 ‘서농유통’





충남 서산시 성연면 평리에 위치한 서산시연합회 부설사업체 (주)서농유통 새댭김치는 1991년 12월 한농연서산시연합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하게 되었다.

UR(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우리 농촌의 앞날을 걱정하던 경영인들이 서산지역 6쪽 마늘, 생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김치임에 착안하여 김치공장 설립을 계획하였다.

설립 초반기에는 시행착오와 시설투자 의 재원마련, 판로개척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공장 설립에 참여한 서산시회원들은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들의 소득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꼭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속에 새댭김치는 1991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18년동안 고용창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성장해오고 있다.

새댭김치는 포기김치를 주종으로 연간 4,000여톤 생산이 가능하며, 일 평균 10~15톤을 생산할 수 있다. 공장시설은 저온저장고 3동 150평, 숙성실 50평, 냉장실, 전처리실 100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춘 폐수처리장도 완비하고 있다.

현재 서산지역 40여개 학교의 급식을 비롯, 인근지역의 교도소 및 군부대 납품과 서산 인근지



역에 주재하고 있는 삼성을 포함한 50여개 회사의 단체급식에 새덕김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계 최고 김치의 맛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낙토서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생산한 원재료를 사용하기에 일반 김치생산업체와는 차별화된다. 농식품부 지정 '전통식품개발 지정업체' 로 선정될 정도로 이미 충남지역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새덕김치는 현재 포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백김치, 오이소박이 등 총 12개 품목을 연중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단체급식뿐 아니라 80g, 300g, 500g 단위의 소포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량까지 포장, 공급하고 있다.

새덕김치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원,부재료를 엄선, 김치생산 20년 노하우를 살려 고품질김치를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 HACCP도입 시설을 완비하고 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의 기업,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박진천 과장 : 서농유통이라고 서산시 연합회 부설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데 20년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 회장 : 서산시연합회는 91년도에 설립했는데, 그 때는 경영인이 아니고 후계자였습니다. 그때는 후계자선발도 치열하고 어렵게 선발했습니다. 그분들이 농업 농촌만큼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보자는 취지로 모였습니다. 한사람 두사람 모이다 보니 서산시 전체후계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주식발행을 하고 만원, 이만원 모금을 하게 되었고, 몇 천 만원이 모인 후 군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후 마침내 김치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향시 김치를 담가오던 사모님들의 노하우로 담가서 관내와 아는 업체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김치를 공급하다보니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홍보가 되면서 이 지역의 군부대, 관내, 여러 업체 등에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하고 “KBS 내고향 생방송”이라던가, 김치 대축제 등에 참가하여 많이 상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진천 과장 : 서농유통이라는 사명보다 대외적으로 서농유통보다는 라는 이름이 유

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근한 브랜드명을 작명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유영철 회장 : 우리가 서농유통이라는 이름에서 회원이 추천한 새댁김치라는 브랜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귓속에 상당히 친근감이 느껴지며, 새댁들의 김치를 잡는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천 과장: 서산시부설 사업체인 서농유통의 구성이 궁금합니다. 주식회사면 주주가 구성이 되었을텐데,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영철 회장 : 서농유통의 주주는 100%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외에 외부 주주는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 경영인 출신들만 주식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경영인들만 푹푹 뭉쳐가지고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알아 두시면 됩니다.

박진천 과장 : 이후에 사업이 활발하게 점점 커져가면 주식과 관련해서도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충당해야는데 지금 현재 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우리회원들만 100%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일반주주들에게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유영철 회장 : 지금 더 사업을 크게 벌리더라도 우리회원들에게 주식을 더 확대해서 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외부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농유통은 오리지널 우리 농업경영인 것이 아닌 외부인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계획은 없고 더욱 푹푹 뭉쳐서 할 것입니다.

박진천 과장 : 서농유통이 인증관련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인증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 인증 받은 다음에도 사업이 많이 번창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유영철 회장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식품에 인증받기 위해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받기 힘든게 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을 받기위하



다음은 한농연서산시 연합회 부설사업체 (주)서농유통 명예회장인 유영철 서산시 연합회 회장과 박진천 중앙연합회 사업관리실 과장의 (주)서농유통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직관리 차원이나 기타 인터뷰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호에 연재토록 하겠으며 다음호에는 (주)서농유통을 직접 경영하고 계신 경영인 출신 이성열 대표의 인터뷰내용을 연재하겠습니다.



여 여러 번의 실패를 하였고, 우리들 스스로 실패를 계속 개선해나가며 이끌어 나갔습니다.

박진천 과장 : 받은 다음부터는 확실히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유영철 회장 : 그렇죠,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 안받고는 홍보 할 수도 없고 모든 업체에서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회사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그것을 먹지 첨부되지 않으면 먹지도 않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권도 있어야지 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경영인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거의 보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공급을 받고 있으며 그런 위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주로 가며 아니다 싶으면 부족한 식품을 공급을 받더라도 거의 이지역의 농산물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천 과장 : 계약재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유영철 회장 :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농사를 지으면서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값이 너무 비싸서 계약재배관련 손해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지역에는 양념류가 상당히 최고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강 마늘 고추가 이지역이 상당히 맛있는 좋은 재료가 나와서 최고급의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천 과장** : 잠깐 거래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영철 회장** : 실제 우리 서산지역에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오일뱅크, 삼성 등이 있는데 공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미군부대라던가 학교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수매되며, 농업관련 행사 외에 거의 모든 행사시에는 항상 우리 김치가 공급되다시피 합니다.

**박진천 과장** : 학교급식이 많이 활발해지면 확실히 사업성과도 높아지겠습니다.

**유영철 회장** : 근데 이쪽에도 김치공장이 여러 개있기 때문에 서로 인맥을 통해서 엄청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공장이 아니고 우리 900명의 회원들의 회사기 때문에 우리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경영하면서 이익은 각 연합회로 공유 주식대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의 봉급을 제외하곤 남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남기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조금 단가를 높여주기도 하고, 우리 회원들이 농사를 지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갈려고 합니다. 전 회장님도 그랬고, 차기 회장님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갈 겁니다.

**박진천 과장** : 사업을 하시면 자원과 관련해서 어려우신 점이 많은데 도청 및 시군청에서 지원이 많이 있으십니까?

**유영철 회장** : 도에선 협조를 많이 안하고, 우수농산물 측정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지사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지원을 많





이 해주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지원을 받았으며, 공장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00% 저의 자금으로 했다면 좋겠지만 약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천 과장 : 김치업종이 타업체와 경쟁이 심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신 노하우라던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영철 회장 :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 지역이 김치업종에 여건이 맞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영인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서 좋은 재료를 납품을 하고 좋은 양념들을 생산하여 납품을 하고, 우리가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초창기 때부터 회원 사모님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로 자신의 김치 만드는 특징 하나하나를 접목시켜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900명의 회원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분들 한명 한명이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하여 영업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개인이 영업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고 전체가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